

안전불감증이 빛은 인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촉구

노동계·시민단체, 산재시정 특별법·공동진상조사 요구

정치권, 관리감독 책임 일원화 등 법률제정 추진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지난 14일 발생한 여수산단단지 내 대립산업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불감증이 빛은 인재”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 등 근로자들은 16일 오후 2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립산업 공장 정문 앞에서 대립산업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대립산업이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 발생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립산업 최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노조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

상조사를 제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립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노동자 600~7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 기조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산재사망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기업안전특별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진보연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업체 및 관계기관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노후장비 교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강화, 화학물질정보 외부공개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안전 불감증이 빛어낸 인재’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5일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주영순 전남도당위원장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확실한 관리감독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대립산업 측에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국회활동을 통한 재발 방지 입법안 마련, 다원화해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권을 환경부로 일원화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민홍철·박

수현·서영교·신장용·유성업·이웅섭·전순욱·이낙연·김성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폭발사고 현장 방문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 방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기업이 관심을 갖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인재였다”고 대립산업 측에 책임을 물었다.

방문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문제로 노동자들의 야간 작업·근무 문제, 원청이 하청에 넘기면서 발생한 책임 떠넘기기, 관리감독 책임 일원화 등을 들고 관련 법률 제정 활동을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의원의 위도 성명을 통해 철저한 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전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기관과 장비 설치, 산재 전문병원 설치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정부와 회사 측에 촉구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17일 폭발 사고가 난 여수산단단지 내 대립산업 화학공장 정문 일대에 사망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원인 규명과 보상을 촉구하는 노동단체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전교육조차 없이 단기계약직 투입했다”

사상자중 대립직원은 2명... 15명이 하도급 근로자

여수산단 내 대립산업 폭발사고를 계기로 산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단단계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면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17일 여수산단 내 대립산업 등에 따르면 대립산업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고밀도

플리에틸렌 공장 정기 보수 작업을 유한기술에 맡겼다.

대립산업은 브리핑에서 17명 사상자 중 대립산업 직원 2명을 제외한 15명은 유한기술 근로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한기술은 이 작업을 사실상 D사에 다시 하도급 형태의 일감을 줬으며 근로자 상당수는 D사의 지시를 받아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비 보수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하루 14만원(오전 8시~오후 5시)을 받기로 하고 25일간 단기계약을 했다. 유한기술은 작업 기간 중 40명의 근

로자를 모집해 작업현장에 참여시킬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숨진 반장과 함께 일감에 따라 팀으로 옮겨다니는 근로자들로 유한기술로부터 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D사와 일할 하게 됐다 고 한 현장 근로자는 전했다. 근로계약은 유한기술과 맺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D사가 하는 불합 하도급의 심스러운 대목이다.

투입 전 안전 교육이 절실한 작업이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도 제기돼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말했다.

유한기술 측은 현재 구체적인 공사 금액 등 계약 내용을 밝히려는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는 게 플랜트 노조 측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단단계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하도급 관행 개선 논의와 법적 책임 공방 등이 예상된다.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을 그대로 돌 경우 이러한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하도급 발주 업체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alee@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보상·관리 철저히...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방하남·황우여 현장 방문

분향소 찾아 유족들 위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 국가산업 단지를 방문해 산단 관계자와, 대립산업 사측 관계자들을 만나 사고 수습대책 등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날 여수산단 내 대립산업(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최근 대형 산업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폭발·누출 위험이 있는 공장단지에 대해 점검을 하려는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립산업 사측을 만나 “사후보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사후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지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맨 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새누리당 주영순(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15일 대립산업 폭발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유지보수를 맡는 업체가 광장히 영세하다는 점”이라며 “특히 안전관리감독이 나 사전 정보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업체들의 기술지원문제와 원·하청 간 관계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날 폭발사고가 난 여수 국가산단 대립산업 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7시께 공장에 도착해 김충석 여수시장, 정재윤 여수경찰서장, 박달호 여수소방서장, 이해옥 대립산업 부회장, 박찬주 대립산업 대표이사 등이 동반한 가운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수=임문택·김창희기자 chkim@

사고현장지휘는 전남소방본부장... 장례절차·보상은 여수시

비상체제 가동... 21일부터 정밀 안전진단

전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15일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사고 현장 지휘는 전남도 소방본부장이

맡으며 사망자 장례절차와 보상 협의는 여수시가 전담,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합동 예비감사가 끝나는 오는 21일부터 도청 관련 실과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 한국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 사고상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받고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통해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시 현장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오광희기자 kroh@

인터뷰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진열판매!

1호점 슈니팡 총장로점 (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 14시

- 광주 우체국
- 공전제과
- 개업시은품증정 3개이상 구매시 망치증정 선착순 22일 50개, 23일 50개 한정

- 2호점 메가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 14시
-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 7호점 광주 수완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머물만한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대한생명
구.한미쇼핑
현제장소
비로점으로 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진/원/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일 : 오후10시~오후12시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모집 공고

코스규모 27홀, Par 108(전장 : 9,625미터)
모집인원 (100구좌) 무기명카드 및 vip회원 (개인 및 법인)
모집기간 2013년 03월25일 ~ 2013년 07월25일
입 회 금 vip회원 : 2억3천만원(1구좌)
4억6천만원(법인1구좌2인)

(VIP)회원 특전 (1),(2)중 선택

회원특전(1)

- ▶ 주 말 부 경 - 월4회 (부경자 정회원)
- ▶ 정 회 원 1명 - 그린피 면제 (주중/주말)
- ▶ 동반자 3인 회원대우(주중/주말 년50회)
- ▶ 지명회원 2인 - 2인 그린피면제 (주중/주말)
- ▶ 동반자 3인 월2회 준회원대우(총24회)
- ▶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월 50% 할인

회원특전(2)

- ▶ 주 말 부 경 - 월4회 (부경자 정회원)
- ▶ 정 회 원 1명 - 그린피 면제 (주중/주말)
- ▶ 동반자 3인 회원대우(주중/주말 년50회)
- ▶ 무기명카드 3매 발급 - 카드 소지자 그린피 면제(3매 함께 주중/주말 년120회)
-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 (3매 함께 년30회)
- ▶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월 50% 할인

특전기준
1. 본 특전은 18홀 라운딩 기준이며, 1월1회 사용.
2. 회원대우 요금은 개별소비세 등 세금 별도 금액임.
3. 위 특전은 매년 1월1일부터 재 갱신 됩니다.

구비서류
입회신청서(소정양식)1부 / 사진 3매
개인/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수납은행
광주은행 727-127-005215
예금주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CC

문의전화 061)320-7700/7777

최고의 명문을 지향하는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CC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 금호아파트
- 이마트
-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 계림사거리 버스정류소 54, 39, 87, 160, 419
- 4,19정류소 55,98,151,518
- 산정인구 계림초등학교
- 호남직업전문학교
- 출몰루스
-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